

특집: ESG와 식품산업

ESG의 이해와 ESG 경영을 해야 하는 이유

조 상 우

(주)풀무원 풀무원기술원

Understanding and the Reasons for ESG Management

Sangwoo Cho

Pulmuone Co., Ltd., Pulmuone R&D Center, Osong, Korea

서 론

최근 국내 우수기업의 CEO들이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언론을 통해 ESG 경영으로 기업 생존력을 키우겠다는 선포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굼직한 기업들이 앞다퉈 주창할 만큼 ESG는 큰 화두다. 본 고에서는 ESG가 무엇이고 기업은 ESG 경영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ESG의 이해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al), 사회책임(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다. 그런데 왜 최근 ESG가 주목받고 있을까? ESG는 기업의 경영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기 때문에 관심이 뜨거운 것이다. 국내외 기업들은 ESG 평가에서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이 이사회 내 ESG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영국 매체 파이낸셜타임스는 ‘2020년 ESG가 스테로이드를 맞은 듯 폭증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ESG는 ‘기업’, ‘지속가능성’이라는 키워드로 접근하면 이해가 쉽다. 기업의 전통적 경영 방식은 재무적 가치 즉, 수익성을 우선시해왔다. 하지만 주주, 소비자, 지역사회, 언론 등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기업의 역할이 변하면서 경영 방식에 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어 왔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분위기가 전 세계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 아무리 품질이 좋다고 하더라도 비인도적인 절차로 만들어지거나 생산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면 소비자들은 해당 기업의 물건을 소비하지 않으려 한다. 비재무적 요소를 관리하지 않으면 재무적 성과도 큰 타격을 입는 상황을 쉽게 볼 수 있다. 기업의 윤리적 행보를 원하는

사회적 분위기,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의 필요성에 의해 ESG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다 ESG에 투자 개념이 더해지면서 관심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투자시장에서도 ESG는 큰 화두다. 국제적 책임투자 권고 규범인 UN 사회책임투자원칙에서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ESG 데이터를 투자 시 중요한 판단 요소로 강조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은 2020년 초에 “투자 결정 시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주로 경제적 가치에 초점을 두고 기업을 평가한 투자자는 최근 비재무적 정보를 고려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만큼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소가 기업 가치 평가의 주요한 기준이 됐다.

ESG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성장 추세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도이치뱅크(Deutsche Bank)에 의하면 세계 시장에서 ESG 투자 규모는 2030년까지 100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기업들은 ESG 경영에 총력을 기울이며, 투자자들은 투자 의사 결정에 활용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ESG 정보 공개 요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풀무원의 ESG 경영

풀무원은 기업 탄생의 토양 자체가 ESG라고 할 수 있다. 풀무원은 ‘유기농’이라는 말이 생소한 1980년대부터 자연·생명의 가치를 우선시하며, 기업 미션인 ‘사람과 자연을 함께 사랑하는 LOHAS 기업’을 이루기 위해 비재무적 요소를 강조해왔다.

경영활동 전반에 적극적으로 ESG 요소를 반영해온 결과, 풀무원은 대외적으로 ESG 경영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주관한 ‘2021년 ESG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식품기업 중 최초로 5년 연속 ESG 통합 A* 등급을 획득하고 ESG 부문 최우수기업상을 수상했으며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한국위원회의 탄소경영 부문 특별상을 수상하

기도 했다.

ESG 경영 실천을 위한 풀무원의 노력은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난해 다우존스가 평가하는 지속경영지수(DJSI) 평가에서 식품산업 부문 116개 글로벌 식품 기업 중 6위에 랭크, 2년 연속 10위권 안에 들면서 지속가능성을 인정받았다.

풀무원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부문 전반적으로 균형을 갖추고 ESG 경영을 실천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는 ESG 각 항목별 상세 활동 내용이다.

E_(Environmental; 환경)

풀무원은 ‘친환경(Eco-Friendly)’을 전사 핵심 사업전략으로 삼고 꾸준히 환경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풀무원은 기후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실적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며 환경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 발생량 감축 목표를 설정해 매년 이를 실천하고 감축 결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공표한다.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태양열 온수 생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태양광 발전 설비에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지구환경과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조화로운 삶을 위해 지난해 12월 충북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단독 부지에 풀무원 새 첨단 R&D 센터 ‘풀무원기술원’을 친환경 건축물로 신축했다. ‘풀무원기술원’은 올해 4월 국내 식품 연구소 최초로 글로벌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인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골드 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풀무원은 제품 제조 전 단계와 폐기 단계에서는 ‘환경을 생각하는 포장 3R 원칙(Reduce, Recycle, Remove)’을 적용해 플라스틱 포장재 줄이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도입, 화학물질이 남지 않는 수성잉크 사용 등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다.

풀무원은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Reduce) 풀무원샘물 먹는샘물 제품에 기존 뚜껑 대비 낮은 높이의 뚜껑을 도입하고, 용기 중량을 초경량 수준으로 줄여 플라스틱 사용량을 절감하고 있다. 또 국산 연두부, 나뭇 제품 용기(트레이)에 탄산칼슘을 혼합하여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을 30% 절감하고 있다.

재활용을 쉽게 하기 위해(Recycle) 풀무원샘물의 생수 병과 아임리얼, 드레싱 등 모든 페트병 제품의 경우 겉면에 부착하는 라벨을 물에 잘 녹아 쉽게 분리되는 ‘수분리 라벨’을 적용하여 재활용을 가능토록 했다. 수분리 라벨은 분리되지 않은 채로 배출된 라벨을 재활용 단계인 페트병 세척 과정에서 쉽게 분리될 수 있도록 한 친환경 라벨이다. 소비자가 분리배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라벨 절취선은 풀무원녹즙의 전 제품에 적용하고 있다.

포장재에 남는 화학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Remove) 두부 필름지에 화학 물질 걱정이 없는 수성 잉크를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9년 기준

연간 125만 톤 줄이고 있다.

주력제품인 국산 콩두부 10종은 영국 친환경 인증기관 ‘카본 트러스트(Carbon Trust)’의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인증을 받으며 글로벌 No. 1 두부 기업의 위상을 확고히 해 나가고 있다. ‘카본 트러스트’는 영국 정부가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 감축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기관으로 전 세계 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탄소·물·폐기물 등의 ‘환경발자국 인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 ‘탄소발자국’은 제품의 제조 전 단계부터 폐기까지 발생하는 총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여 수여하는 인증이다.

풀무원은 한국 식품 기업 최초로 카본 트러스트의 탄소발자국 인증을 취득했으며, 내수용인 국산 콩두부 10종에 이어 내년에는 수출하는 두부 제품까지 탄소발자국 인증을 확대하고, 2022년에는 카본 트러스트의 ‘저탄소 인증’ 획득을 목표로 두부 제품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제품 제조 단계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도입했다. 풀무원은 두부 공장, 김치 공장, 물류센터 등 전국 9개 사업장에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 집열 설비를 구축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생산 부산물을 재활용하고 있다. 풀무원은 두부 공장의 생산 부산물인 ‘비지’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선순환을 하고 있다.

2022년까지 풀무원의 모든 제품에 재활용 우수 포장재를 적용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35%, 에너지 사용량 24%, 물 사용량 50%, 폐기물 배출량 6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_(Social; 사회책임)

풀무원은 식음료 제조업의 특성을 살린 사회공헌활동 추진으로 사회책임 경영에도 앞장서고 있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 추진을 위해 2012년 4월 비영리 공익법인 ‘풀무원재단’을 설립하고 건강한 먹거리, 건강한 환경, 건강한 사회 3대 영역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0년부터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풀무원 대표 사회공헌활동 ‘바른먹거리 교육’은 어린이, 성인,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중 6~13세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바른먹거리 교육’은 지난해에만 26,9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로 개인위생수칙 준수가 중요해진 가운데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교육을 운영 중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회용품 쓰레기가 심각해지면서 어린이와 학부모가 함께 조그마한 쓰레기를 줍고 모바일로 인증하는 비대면 환경보호 프로젝트 ‘어린이 줍깅’도 실시하고 있다.

풀무원은 사회적 책임 실천의 일환으로 모든 이해관계자가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비인격적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글로벌 수준의 인권경영(인

간존중경영)과 CP(공정거래자율준수)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간 존중, 차별 금지,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 금지, 산업 안전 보장, 소비자 안심 등 10가지 원칙을 협력업체 등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의 안전 및 건강,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풀무원은 동반성장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를 바탕으로 협력기업과의 상생 협력 및 신뢰를 구축하고 함께할 수 있는 상생 프로그램과 제도 또한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지난 12월 14일에는 풀무원식품이 동반성장위원회,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없애기 위한 ‘혁신주도형 임금 격차 해소 운동’ 협약을 맺기도 했다. 협약식에서 풀무원식품은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 협력 프로그램 운영에 앞으로 3년간 총 271억 원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협력 중소기업 대상으로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1억 1천만 원), ▲스마트 공장 구축 및 경영 혁신 등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프로그램 지원(8억 4천만 원),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 자금 지원(261억 원)을 추진한다.

풀무원식품은 지난 9월 동반성장위원회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평가에 참여한 지 3년 만에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고, 지난해에는 중소벤처기업부·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2019년 동반성장 주간 행사 기념식’에서 ‘자발적 상생 협력 유공 단체’ 부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상생 협력의 노력을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G_(Governance; 지배구조)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는 이사회로 대표된다.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기관이다. 회사의 전략, 투자, 실적, 공시 등의 사항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경영에 있어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만큼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진을 선임하는 데에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밑바탕 되어야 한다.

풀무원은 지배구조 측면에서 매우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풀무원은 2018년 1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전문경영인 체제를 출범하고, 지난해 글로벌 기준 지주회사 체제 확립으로 투명한 지배 구조 체제를 갖췄다. 투명성과 다양성을 확보한 이사회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이다.

풀무원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사 선임 프로세스를 수립해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내이사 후보는 이사회 산하 인사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통해 후보에 대한 자격과 자질을 검토한 후 주주총회에 추천할 후보를 선정한다. 사외이사 후보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 방안과 후보자들을 선정한다. 이후 수차례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주주총회에 추천할 후보를 확정한다.

다. 후보 확정을 위한 토의 시에는 이사의 독립성 기준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물론, 후보의 전문성, 경영 마인드, 사회적 지명도 등의 평가 기준과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선임 시기별 경영 환경 등을 고려해 이사를 선임한다.

이사회가 효과적으로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독립성 확보가 필수다. 풀무원은 사외이사 주요 결격사유를 규정해 이를 엄격히 준수하며, 통합보고서를 통해 대외적으로 이사회의 독립성을 공개하고 있다.

풀무원의 이사회는 사외이사 8명, 사내이사 2명, 기타 비상무이사 1명 등 총 11명의 이사로 구성돼 있다. 사외이사 비중이 73%에 달하며, 이는 일반 상장사 중에서 최고 수준이다. 국내 상장기업 가운데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과반수인 사례는 많지 않다.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풀무원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사외이사 비율이 높은 점 이외에도 풀무원의 이사회는 남다른 특징이 있다. 사외이사진에 성별 다양성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8명의 사외이사 중 여성은 3명으로 다른 기업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높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기준) 상장사들의 사외이사진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1%이다. 풀무원은 이사회에 여성 사외이사를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성별 다양성 확보 의지를 밝히고 있다.

ESG 경영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풀무원이 ESG 경영을 도입한 이유는 회사의 장기적 성과를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함이다. 많은 기업이 ESG 경영을 도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김, 2019; 오, 2020; 장, 2020).

첫째, 회사의 장기적 성과를 제고할 수 있게 된다. 즉, 회사는 ESG 위험의 관리를 통해 장래 소송, 제재 등 부정적 사건에 의한 비용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ESG 성과는 투자자에게 경영의 질의 척도로 판단되기도 하며, ESG 관리를 통해 회사의 무형 가치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기금자산운용에 있어 안정성, 수익성, 그리고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다. 기업은 수익성을 희생시키지 않는 ESG 투자전략을 통해 자산운용의 안정성,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ESG를 고려하여 운용전략을 수립할 경우 기금의 최종 수익자에게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이익이 될 수 있다.

셋째, 사회 및 국가 경제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기업이 재무적 성과에만 몰두하여 근로자 착취, 환경오염 등 사회적으로 무책임한 행위를 통하여 단기적 성과를 쟁취할 수는 있으나, 결국 복지, 환경 개선과 같은 사회의 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 그러나 ESG 개선을 통하여 사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에 이익을 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결 론

첫째, 환경을 보면 산업혁명 이후 지구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UN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는 9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더 많은 화석연료가 사용되고 있으며 늘어나는 인류의 생존을 위한 식량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가스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구의 평균온도는 점점 올라가게 되어 각종 환경재난 등 지구촌의 위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도하 아젠다 발표 이후,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산업혁명 이전의 지구평균온도 대비 1.5°C 이내로 저지하는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으나 현재의 상태로는 4°C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따라서 플라스틱과 같은 화석원료 제품의 저감화, 식물성 대체육과 같은 온실가스 저감 친환경 제품의 개발 등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로, 사회적 책임 면에서는 최근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평등권 부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강선우 의원, 김예지 의원 등에 의한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법안이 발의되었다. 장애인들을

위한 식품 정보의 편리한 접근방법 제공은 ESG 경영의 S(사회적 책임)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표시가독방법에 대한 해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한정된 식품포장재에 점자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IT 기술 강점을 이용하면 DOT 기술 또는 OCR 기술 등에 기반하여 기존의 법적·마케팅 임의 표시 모두 가독할 방안도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식품기업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ESG 경영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셋째로, 지배구조에서는 투명한 지배구조, 사외이사들의 참여와 이사회 의 남녀비율 등 지배구조 부분의 개선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사항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식품기업들도 ESG 경영을 통하여 네슬레나 다논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탄생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진성. 사회적 성과 평가의 발전 동향. KCGS Report. 2019. 9(7):2-8.
- 오운진.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도입 관련 국내 현황 및 사례 소개: 주요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KCGS Report. 2020. 11(10·11):2-6.
- 장윤제. ESG 개선의 현황과 과제. KCGS Report. 2020. 10(1): 2-9.